

# 處女期の 各種 婦人科的 疾患

産婦人科

—李 玉 敬—

## 1. 사춘기(思春期)

### (a) 초경(初經)

사춘기란 유년에서 성년으로 옮겨가는 사이를 말하는것으로 이 시기에는 생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커다란 변화를 가져옵니다. 아 많은 변화중 가장 뚜렷하고도 중요한 증세의 하나가 월경입니다. 이 첫번 월경을 초경(初經)이라고 부릅니다.

초경이 시작 되는 연령은 개개인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보통 만 14세를 두 서너달 앞 두고 시작하는 경우를 정상(正常)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아주 이르면 만 9세 늦으면 만 17세까지도 이상(異常)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이 연령의 차이를 가져오는데는 여러가지 요소들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유전(遺傳)도 그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예(例)를 들면 어떤 가족에게는 어머니로부터 모든 딸 형제들이 다 초경이 일찍 시작 하는 경우가 있

고 반면 아주 늦어서 16, 7세에 초경이 오는 예도 있습니다. 또한 기후(氣候)의 차이도 중요한 요소의 하나라고 생각되어 왔지만 그 보다 종속(種屬)의 차이로 평균 연령이 많이 다르다고 최근에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에스키모족은 이태리인들 보다 초경이 늦어지고 또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이르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것들 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가 개개인에게 있다고 봅니다. 즉 주위환경 사회적 위치 영양상태 전체적인 신체의 건강등이 그것이며 빈곤한 계급에서 영양이 부족하고 주위가 위생적이 못되는 환경에서는 전체 신체발육에도 지장이 있을 뿐더러 초경도 늦어집니다. 이 밖에 빈혈 결핵 당뇨병등 만성 질환등도 초경이 늦어지는데 기여(寄與)한다고 생각합니다.

### (b) 제 2의 성조(性兆)의 발육

사춘기 이전에는 소녀와 소년이 남자와 여자라는 구별뿐 실제적인 신체

에 뚜렷한 구별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춘기에 들어스면 전신이 붕글 붕글 해지며 산결이 매끄러워지고 유방이 부풀어 오르기 시작하고 여성다운 매력을 나타내게 됩니다. 사실상 이런 변화들이 초경보다 먼저 나타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여성 생식기(生殖器) 즉 자궁, 난소, 외음부등의 발육도 왕성해지고 때로는 그 기능이 벌써 시작 될 경우도 있습니다. 나 어린 소녀가 임신했다는 것이 이런 경우 일 것입니다. 정신적인 면에 있어서도 자기 자신이 여성이라는데 눈을 뜨게 되어 이성(異性)에 대하여 한층 강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때로는 아직 어린애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채 어른들의 세계에 흥미를 가지고 동경하며 흉내를 내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정신적인 활동으로 인해서 때로는 지나친 정신적인 흥분 또는 침울 등으로 생활의 질서를 잃고 건강을 해치는 일들이 있습니다.

### (c) 사춘기의 섭생

사춘기에 도달했을 때는 급작히 자라는 전신의 성장세포(成長細胞)을 위하여 많은 카로리의 영양이 풍부한 음식과 적당하고 충분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신체의 각 부분 특히 장골(長骨)이라든가 생식기등은 이시기에 그의 완전발육을 기하여야 하

므로 만약 이때에 영양이 필요량을 채우지 못한다든가 또는 한가지 영양소가 결핍 해서 발육부전(發育不全)을 가져오면 다른 어느 시기에서 이것들을 다시 발육시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마치 순이 나오기 시작하는 초목(草木)들이 풀이나 햇빛이 부족해서 시들어 버리면 다시 피어나지 못하는 것과 흡사 합니다. 특히 과가지 비타민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또한 감정이 로맨틱 해지고 상상력이 풍부하여 공상이 많아지고 모든 일에 예민해 저서 정신적으로 피로해지기 쉽기 때문에 일상생활이 질서 정연하고 위생적이라야 합니다.

즉 신선한 공기, 햇빛, 좋은 음식 적당한 운동 필요한 시간의 수면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학교의 과정이나 직장 등이 과중한 편이 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흔히 이 시기에 지나친 정력을 고된 일이나 공부에 쏟아부어 전체적인 건강을 해치는 일이 많습니다.

처음으로 시작되는 월경은 어린 처녀들에게 정신적인 큰 부담이 되어 다달이 월경이 시작하기만 하면 기분이 아주 좋지 못하며 심지어는 큰 피로움으로 알게 됩니다. 그러나 월경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생리적으로 중요한 것이며 월경때라고 해서 일상시의 활동이 제한 당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어른들은 월경시에는 으레히 고통이 심하여 활동을 제한해야 한다는등의 생각을 넣어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 해야합니다. 간혹 이런 선입감이 월경통을 가져오는 중요한 원인이 되는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멍털한 운동은 물론 삼가야 하며 간단한 테니스 탁구 등은 하여도 정상적으로 월경을 하는 여자에게 별로 해로울것이 없습니다. 목욕탕속에 들어가기보다는 「샤와」로서 몸을 깨끗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월경때는 언제나 깨끗하게 자주 가는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사춘기란 생리적인 신체적인 많은 발육과 정신적인 변화가 한꺼번에 밀어닥쳐 어린 처녀들에게 지나친 부담을 가져오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 시기에 다행히도 이런것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건강의 보살핌과 정신적인 적절할 지도를 할수있는 주위풀 가진다면 많은 소녀들이 이 부담이 많은 사춘기를 무사히 넘겨서 올바르게 성년기로 이행해 나갈수있는 것입니다. 이런것을 책임질수있는 주위란 물론 부모 특히 어머니 언니, 의사, 학교선생님들 교외 목사님 들이며 신체와 정신적인 발육이 올바르게 되어나갈수 있게 도와주어야 할것입니다.

#### (d) 사춘기에 있어서의 수음(手淫)

본래 여자에게는 두개의 성기(性器)가 있는데 그의 하나는 음핵(陰核)이라는 것으로서 뇨도구(尿道口) 바로 위에 있으며 이것은 유년기에 있어서의 어떠한 성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며 또 하나는 질(陰)인데 이것은 사춘기가 되기전에는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나 사춘기 이후에는 가장 중요한 성기(性器)의 역할을 하며 성의 기능이 유년기때의 음핵에서부터 성년기 이후에는 질로 이동해 오는것입니다.

처녀시절의 수음은 보통 음핵을 자극 시켜서 쾌감을 얻는 것인데 이것이 습성화 되며는 결혼후 정상적인 질.마찰로 인한 성관계에 있어서 쾌감이나 만족을 얻을 수가 없어 불감증(不感症)이 되고하는 원인이 되기 쉽습니다. 또한 음핵의 자극으로 오는 성적 만족이 그리 완전한 것이 못되어 자궁질속에서 분비되는 분비액도 이상적으로 나오는 수도 있습니다. 또한 흥분이라든지 만족감이 음핵에서부터 자궁질 속으로 이동해 오지 않으며 이러한 여자에게는 정신적인 면 특히 감정도 유년기를 벗어나지 못하는 수를 간혹 봅니다. 또한 뇨도구(尿道口) 가까운 음핵을 자극시킬때 뇨도구가 불결해 지기 쉬워서 뜻하지 않는 비뇨기(泌尿器) 계통 질환의 감염도 가져오기 쉽습니다. 이러한 수음은 어디까지나 정상

적이 아니며 사춘기의 일시적인 호기심으로 시작 했든것이 악습화(惡習化) 되어 많은 해를 받게 되고 나아가서는 일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원인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처녀들은 수음의 해로운 점들을 알아야 하며 또한 질서있는 생활과 적당한 운동을 하여 될수있는대로 한가한 시간을 가지지 않도록 하고 자기전에 적당한 운동을 하여 숙면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 2. 월경불순과 월경통

### (a) 월경불순

월경은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생리적인 자궁출혈을 말하는 것이며 대개 28日만에 한번씩 반복 하는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25일에서 22일 사이를 두고 약간의 불규칙한 때가 같은 사람에게도 있을수 있습니다. 또한 월경이 지속하는 기간은 2일에서 8일까지가 정상입니다. 그러나 보통은 2일에서 5일간 계속합니다. 월경때 잃어 버리는 피의 양은 10c.c.에서 많으면 200c.c. 까지도 됩니다. 그러나 평균 50c.c. 가량이타고 합니다.

그러나 처음으로 월경이 시작된 어린 처녀들 중에는 초경이 보인후 수개월동안 또는 일년이 넘도록 월경이 없다가 다시 시작하고 그 후로는

아주 순조롭게 진행 합니다. 때로는 월경이 시작 하려는 10일이고 15일이고 계속하고 또는 월경양이 아주 많아서 심한 하혈(下血)같이 쏟아지기도 하고 때로는 조금씩 조금씩 내외(內衣) 밑에 오랫동안 못기만 하는역도 있습니다.

이런 예들도 월경 불순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것들이 아주 성년기에 들어선 부인들처럼 그리 증대성을 띤 것은 아닙니다. 사춘기단 신체에 발육이 유년기에서 성인으로 옮겨지는 시기이니만큼 초경 이후 완전히 난소와 자궁 내막이 성숙해 저서 올바르게 그 기능이 시작 되기까지 그사이에 약간의 불규칙이 있을수 있으며 월경에 필요한 모든 요소와 상호간의 연관성이 올바르게 성립되며는 월경불순은 자연적으로 없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초경이후 5,6년이 지나도 계속해서 불순하며는 근본적인 기관(器管)에 이상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월경은 시작되었지만 어린 처녀들에게는 배란(排卵) 작용(作用)은 아직 시작되지 않아서 배란없이 자궁출혈만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수가 간혹 있습니다. 이것을 무배란성월경(無排卵性月經)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어던 처녀시기에는 그리 크게 취급되고 있지 않으며 이 시기에는 대개 월경이 불순합니다. 그러나 난소에 난포(卵胞)

발육이 완성 되어서 한달에 한번씩 난(卵)이 배출되려는 비로서 월경이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무배란성 월경이 성인이 된 이후까지 계속 하려는 자연히 불임(不妊)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초경 이후 오래동안 월경이 없어도 별로 서둘러서 치료할 필요없이 기다리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만약 월경이 하릴 같이 많은 양의 피가 오래 계속 하려는 되도록 빨리 출혈을 멈추어야 합니다. 지나친 실혈(失血)은 어린 처녀들의 건강을 해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기 쉽습니다.

#### (b) 월경통(月經痛)

월경이 시작되려는 대부분의 경우 그 첫날은 하복부와 허리에 약간의 압력과 또는 통증들 느끼는 것이고 때로는 설사 또는 반대로 변비등이 오는 수도 있고 소변이 잦고 약간 땀이 무거운듯 해집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일상생활에 지장을 가져올 정도로 심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어린 처녀들에게는 그밖에 월경통에 원인이 될만한 직접적인 질환이 발견되는 경우란 아주 드물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초경이 시작될 무렵에 월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어린 소녀들에게 가르쳐야함은 물론 월경에 대한 불안감이라든가 공포심등이 싹트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 할

것입니다.

월경통이란 대부분의 경우 정신적인 요소가 크게 작용하고 있으며 월경만 시작하려는 그대로 자리에 틀어누어 버리는 예도 있습니다.

또한 무배란성월경(無排卵性月經) 일때는 월경시에 고통이 없는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린 처녀들에게 月經통이 있을때는 사실상 배란이 있고 그 월경이 온전 하다는 것을 입증(立證)하는 것입니다. 이런경우 불필요한 「홀몬제」등을 사용해서 배란을 억제 해 버리면 정상적인 발육으로 부터 발육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게 하는 결과도 가져 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월경통이 심하다 해서 발육기에 있는 처녀들에게 「홀몬제」등을 남용 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실제로 월경때 고통이 심하면 「아스피린」 「사리돈」 정도로서 충분히 조절해 나갈수 있을것입니다. 특히 학교를 쉬어야 할 정도로 고통이 심한때도 특별하게 직접적인 원인이 없을때는 이것은 정신적인 치료 요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반드시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 3. 冷症에 대하여

냉이 흐른다는것은 아래로 흘러 나오는 모든 분비액을 말하는 것으로 자궁 출혈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

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떠한 병 특히 여자생식기중 어느 한 부분이 고장이 생겨서 일어나는 한개의 병 증세입니다. 평상시 없었던 냉이 갑자기 많아 진다든지 또는 질차적으로 빛갈이 달라지며 냄새가 생긴다든지 하는 것은 냉 자체에 책임이 있는것이 아니라 냉을 흐르게 만든 어떤 병이 그 뒤에 잠재해 있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상태하의 여자의 음부의 점막(粘膜)은 그 자체의 분비물이나 또는 그 상부 어떤 기관 즉 자궁경부나 자궁 내막의 분비액을 받아 언제나 습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습할 정도를 지나 외음부로 흘러 나오는 일은 거의 없으며 만약 있어도 아주 미비할 정도입니다. 만약 어떠한 분비액이 외음부로 흘러 내려 속옷을 더럽히고 적실 정도이면 냉이 있다고 할수 있으며 어딘가에 고장이 생기고 있다고 보아야 할것입니다. 그러나 냉의 양이 많고 적은 것으로서 병의 비증을 논 할수는 없으며 때로는 아주 냉이 많이 흐르는 경우라도 거기에 따르는 별다른 증세가 없이 지나는 수도 있고 아주 적은 냉이 흐르는데도 하문이 부어 오르고 아프고 가렵고 또는 배가 아프고 하는등의 증세도 고통을 받는일도 있습니다. 즉 냉의 원인이 되는 병 종류에 따라서 병을

발생케 한 요소나 세균에 따라서 거기에 또한 개개인의 건강 상태가 토대가 되어 각가지 모양으로 다른 빛갈과 성질의 냉이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처녀들에게 가장 많은 것은 대부분의 경우 자궁질부의 질환에서 오는 것입니다. 자궁질부는 자궁경부의 선(腺)에서 흐르는 분비액과 질 자체의 표면에서 노출되는 노출액을 받아서 항상 촉촉하니 습해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질속에 분비액은 산성(酸性)이며 생리적으로 산을 산출하는 균이 질속에는 살고 있어서 병균의 잔열에 대항하며 침입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이 질속의 분비액이 산성을 잃게 될 때는 쉽게 세균이나 기생충등의 병원체가 자리를 잡고 살림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의 대표적인 것이 도니리아(Monilia)라고 불리우는 것과 트리코모나스·바지나리스(Trichomonas Vaginalis)라고 불리우는 기생충인데 이것들이 냉을 흐르게 하는 원인 중에 가장 흔한 것입니다.

전자는 하얀 상한 우유 같은 냉이 범벅이 돼서 흐르고 후자는 노란 엷은 물같은 냉이 줄줄 흐릅니다. 질속으로부터 시작하여 외음부 전체가 대단히 심하게 가려우며 가려움을 참지 못하여 손으로 긁어서 상처를

내면 부어 오르고 화끈 화끈 따갑고 아프게 됩니다. 가려움은 특히 밤에 더하여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심한 때도 있습니다.

이런 질염(膣炎)은 충(蟲)의 고집이 심해서 단시일내에 완쾌 되기가 어려워며 환자들은 이병원 저병원으로 전전 하는 수가 많습니니다. 이런 성질의 질염은 항생물질 즉 페니시링 스트렙트-마이싱 베라마이싱 등의 주사나 복용은 필요치 않습니다.

이러한 황가스족의 균이나 기생충 등이 질속으로 침입할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으며 강이나 풀 호수 등에서 수영을 했다든지 우물물이나 공동발레터에서 빨아 입은 속내의로부터라든지 대중목욕탕물, 수전, 손가락, 등 우리들 일상생활 주변에서 얼마든지, 찾을수 있으며 어느 때 어느 누구라도 감염될수있는 병의 하나입니다. 그러기에 처녀들에

게도 아주 많이 볼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핵시콜, 트리코, 마이싱 등의 자궁내에 삽입할 수 있는 질정들이 시중에 나와 있고 또 이런것들이 효력도 있지만 국부의 청결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의등은 반드시 삶아서 입도록 해야합니다.

부끄럽다고 병을 숨기고 특한 연고등을 외음부 표면에 바르고 하여 많은 상처를 부드러운 살결에 내는 일들을 흔히 보는데 이런 일들로서 뜻하지 않게 외음부의 털이 빠지고 처녀막등의 심한 상처를 받을 우려가 있으니까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사춘기에 있어서 아주 맑고 흐리지 않은 분비액의 증가는 자궁경부의 선(腺)의 기능항진(機能亢進)으로 오는 수가 있으며 이런때는 별로 임상적(臨床的)으로 중요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능한 간호원이 되려면

## 해 부 생 리

홍 욱 순 옮김

제 4 판

값 < 일반가 430원  
학생가 350원